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조경서	학번	■■■■■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5. 1. 18(일) ~ 2. 8(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College는 우리학교 보다는 작지만 생각보다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하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매 층마다 화장실이 없었던 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랑가라 컬리지 근처에 트레인 타는 곳과 버스정류장이 있어 수업이 끝난 후 돌아다니기에 편했습니다.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분반을 하지 않고 같이 한반에 모여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은 매일아침 전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선생님이 발음과 문법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학교에서만은 영어만 쓰자는 규칙을 만들고, 상품을 걸어 짧은 기간이지만 speaking이 향상될 수 있게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수업은 밴쿠버 역사와 여행지에 대한 내용 위주였고, 그 내용으로 문법과 듣기, 말하기를 배웠습니다. 따로 밴쿠버 여행지를 알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업시간에 알려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숙제가 있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였습니다.</p>
Activity	<p>밴쿠버 박물관, Langara 학생과의 만남, grville Island, 컬링, 아쿠아리움, Grouse mountain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p> <p>밴쿠버 박물관은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중요사건들에 대한 소개도 되어있습니다. 랑가라 학생과의 만남은 3주 동안 어학연수를 와서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해준 랑가라 학생들과 간단히 티타임을 갖거나 게임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ranville Island에서는 시장 같은 곳을 구경하고, Taby가 내준 과제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컬링은 배우러갈 때에는 장갑과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합니다. 그리고 특히 활동하기 편한 바지가 필요함</p>

	<p>니다. 아쿠아리움은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작지만,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동물들이 있어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스노우 슈잉 프로그램이 잡혀있었지만 눈이 오지 않아서 Grouse mountai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곳에 갈 때는 꽤 춥기 때문에 장갑과 방수가 되는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수업 이외에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갈 때에는 스쿨버스나 버스티켓이 따로 지원을 해주지만, 올 때는 각자 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버스 티켓을 지참해야 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1월엔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튼튼한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트보단 방수되는 옷이 좋고, 온도가 영상이어서 한국 겨울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두꺼운 옷들보단 간편하고 돌아다니기 편한 옷들이 좋습니다.</p>
안전	<p>겨울엔 해가 5시면 지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안다니고, 특정 거리는 어두워지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벤쿠버 사람들이 우리가 여행객이라는 것을 쉽게 알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p>
숙소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저희 집은 홈스테이 가족들은 인도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때문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문화여서 3주 동안 밀가루 음식 외에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홈스테이 집에 온 날 딸과 함께 직접 버스타고 학교에 가면서 정류장 이름과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홈스테이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였고, 특히 아빠는 일이 항상 늦게 끝나셔서 자주 뵈지는 못했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방문 앞에 놓으면 건조까지 해서 놔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물 절약을 중요시 여기셨고, 벤쿠버에 짧게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가볼만 한 곳과 교통편을 알려주셨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 기타() 매일 아침 호스트 엄마가 토스트나 와플, 주스, 요거트 등으로 준비해주셨고, 점심도 싸주셨습니다. 보통 점심은 샌드위치나 파스타, 커리, 볶음밥 등을 해주셨고, 다행히 입맛에 맞아 학교식당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보통 돌아다니다가 외부 식당에서 사먹었습니다.</p>
교통	<p>저는 버스 2개를 갈아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침엔 버스가 자주 있지만, 만원이 돼서 그냥 정류장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여유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347,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약3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240,000원	
교통비	80,000원	
기념품비(쇼핑포함)	250,000원	
기타	95,000원	
합계	665,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벤쿠버는 110V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가져가야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우산과 방수되는 옷이 필요합니다. 기온은 늦가을, 초겨울 같아서 두꺼운 패딩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겉옷이 좋습니다. 카지노나 술을 먹을 때나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ID카드 2장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사본으로 갖고 다녀도 되지만 카지노는 사본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전부터 캐나다를 정말 와보고 싶었기 때문에 오기 전부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홈스테이부터 학교생활까지 기대가 높았던 터라 솔직히 처음 적응하는 1주일 정도는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해가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3주 동안 벤쿠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벤쿠버에 있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버스를 탈 때 간단한 인사를 주고 받으며 타고, 내릴 때는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내리는 문과 운전사분과 거리가 멀더라도 인사를 하고 내리는 모습에서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홈스테이 가족과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홈스테이 가족이 각자 바빠서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방해가 될까 방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같이 잠깐이더라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진지한 얘기로도 이어지기도 하면서, 같이 빵도 굽고, 보드게임, 쇼핑 등 생각보다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영어 듣기와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겼고, 영어 문법에서도 회화를 통해 어느 부분이 약한지도 알고, 영어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부터 영어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성적도 좋지 않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까 영어를 배워왔었는데, 이번 3주를 계기로 처음으로 성적을 위해서가 아닌 순수하게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폭넓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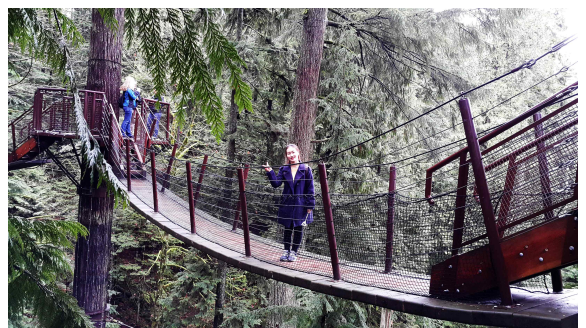
벤쿠버 아쿠아리움



빅토리아 BC주 국회의사당



Stanly Park totem pole



Suspension Bridge



Steam work



컬링